

() 어머니 날을 맞으
배후관(외종모친) 날의 산.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날씨 맑음.

어머니 날을 맞으 오호 우리 식구
큰 딸과 사기. 손자. 작은 딸과 사기. 손자
막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집사들과 나.
이렇게 총인원 10명이 모여서 조촐하게 집에서
화회 아닌 화회를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또한 귀찮은 심정을 갖게 되는 양반상은
어찌 표현 할지?

지주의 형님이 결혼 43년째의 정이들이
(이제) 光년에 들어 사드류 해로한 집사님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가슴이 저려온다.

손과 딸의 구분 시어머니를 보시며 70주년
살고 있는 해광(?) 된 그에게 외종양 수순으로
사명술 해매면 집사님이 원래 된 것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감사 하며 그후부터
우리 식구는 복 받은 가족이 되고 자부라고 생각한다.
마침 5월 11일이 큰딸 날이라 아들
며느리까지 바쁜 날 케워라 와인 또한 딸들이
물어본 것비로 과일 집사님의 행성이 갖는
음식으로 축하 하며 즐거운 저녁을 때를서 함께
보내며 또한 금빛봉과 손자 여백의 직립 그래서

Date

(반은) 카운까지 선물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아내 갓드래?

큰사위는 사위가 된후부터 무모함은 차츰
회복 되고 있어 아내도 조금 좋아하고

각의 사위는 영영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
안심이 되고

앞에 아들이며 여느리는 공부도 바쁘고 예도 열심히
건강 생활에 충실 하고 있어

집사람도 보심 조사 지은 자식 봉사도

이안 라면 평년과는 확실히 다를까?

이제 집사람도 남편 여행 취미 생활로 집사람도
되고 있는 스포츠댄스를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

자식들에게 잘 이리저리 부탁하면 잘 따르는
간절 라면

()

2013. 11. 11

한 반중에

서재에서 문.